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4. 9. 22

전남농업정보

1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양파, 마늘 재배의향 속보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류,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가격동향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동향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벼 무논점과 생산비·노동력 절감 효과 커

정책동향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발표

해외 농업정보

하반기 곡물 수입단가 약보합 전망
“시범적 농업” 좋은 반응 젊은이들에게 취업기회
중국 옥수수생산량, 전년대비 2.2% 하락전망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농업관측센터)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8~19도, 최고기온 : 21~26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제16호 태풍 "풍왕"으로 인해 23일(화)~24일(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음.

☞ 농작물 재배동향(농업관측센터, 해남군)

- ▶ 양 과 :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2,552ha로 추정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014년산보다 6% 감소, 평년보다 2% 증가
- ▶ 마 늘 :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4,554ha로 추정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2014년산보다 2% 감소, 평년보다 4.7% 감소
- ▶ 배 추 : 재배의향 면적이 가을배추 14,260ha, 겨울배추 3,623ha로 추정
- 지난해 가격 하락 및 노동력 문제 등으로 가을배추는 전년대비 6% 감소, 겨울배추는 전년대비 7% 감소

※ 해남군 자체 재배의향 면적 조사결과 : 가을배추 1,485ha, 겨울배추 2,640ha로 추정
 - 가을배추는 전년대비 4% 감소, 겨울배추는 전년대비 7% 감소

☞ 가공·출하 및 가격전망(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01원/L, 고추장(대상) 1,035원/100g, 김치(대상) 6,294원/kg, 두부(풀무원) 1,081원/100g
- 전년대비 간장과 두부는 보합세, 고추장은 55.2% 상승, 김치는 8.6% 하락
- 정부의 물가관리로 큰 가격변동은 없으나, 올해 건고추 출하량 감소로 고추장 가격 상승

- ▶ **엽근채류** : 배추 790원/kg, 무 570원, 양배추 462원, 당근 2,850원
 - 전년대비 배추 36.6%, 무 32%, 양배추 52.7% 하락하고, 당근은 62.5% 상승
 - 추석이후 소비부진 및 출하량 증가로 약세 전망
 - ▶ **양념채소** : 건고추 14,567원/kg, 마늘 3,340원, 양파 526원, 대파 1,340원
 - 전년대비 건고추 26.7%, 마늘 27.5% 상승, 양파 43.9%, 대파 21.4% 하락
 - 건고추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승, 마늘·양파는 저장량이 많아 보합
 - ▶ **과 일** : 사과 3,560원/kg, 배 2,307원, 포도 2,760원, 복숭아 3,111원
 - 전년대비 사과 39%, 배 39.2%, 포도 18.2%, 복숭아 49.6% 하락
 - 출하량 증가 및 소비부진으로 전체 과일류 하락폭이 평년보다 클 전망
 - ▶ **과 채** : 토마토 1,800원/kg, 오이 1,600원, 애호박 1,600원, 풋고추 4,800원
 - 전년대비 토마토 44.6%, 오이 2%, 애호박 38% 하락, 풋고추 21% 상승
 - 토마토, 애호박은 출하량 증가로 약세, 풋고추는 출하가 주춤하여 강세 전망
 - ▶ **축 산 물** : 한우(등심) 6,771원/100g, 돼지(삼겹살) 2,026원, 닭고기 502원
 - 전년대비 한우는 4%, 돼지는 8.2% 상승, 닭고기는 9.7% 하락
 - 한우, 돼지는 사육두수 감소로 강세, 닭고기는 사육 및 수입량 증가로 약세 전망
- ※ 품목별 가격은 도매가격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 35.5억불 수출로 9.1% 증가
 - **국가별** : 홍콩(8.0%), 미국(7.8%), ASEAN(1.7%), 일본(1.7%) 등은 수출 증가, 중국(△1.2%), 러시아(△2.6%) 등은 수출 감소
 - **품목별**
 - (신선농식품) 인삼(17.8%), 딸기(9.5%), 유자차(2.1%) 등은 증가, 화훼류(△37.1%), 김치(△5.7%), 빵이버섯(△3.7%) 등은 감소
 - (가공식품) 고추장(29.1%), 비스킷(18.4%), 음료(13.8%) 등은 증가, 막걸리(△19.2%), 커피조제품(△4.9%), 맥주(△2.9%) 등은 감소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 벼 무논점파, 생산비·노동력 절감 효과 커
 - 2008년 100ha에서 지난해 12,193ha로 5년만에 120배 증가
 - 기존의 기계이앙보다 육묘이앙단계에서 생산비는 81.2%(ha당 235천원), 노동력은 35.3%(ha당 22.3시간) 절감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 ▶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근거 명시
 - 9월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부터 관세화 시행
- ▶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발표
 - 쌀 고정직불금 ha당 90만원 → 100만원 인상 합의
 - 콩,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 수입보장보험 도입
 - 친환경직불금(유기농) 지급기간 5년 → 8년으로 연장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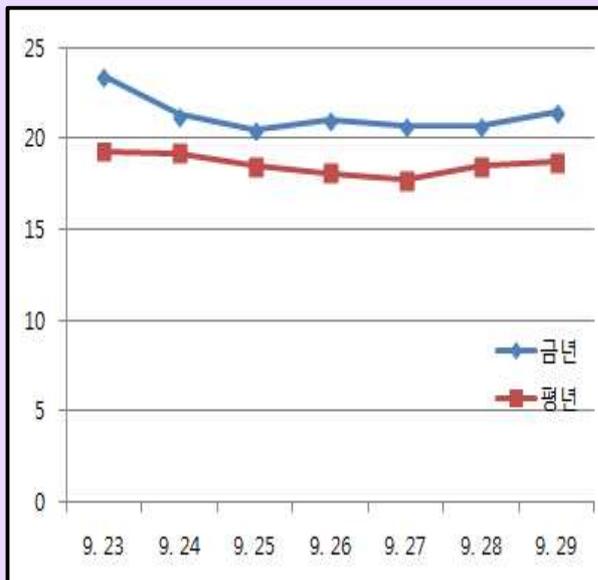
- ▶ 곡물 수입단가 3/4분기 강보합, 4/4분기는 하락 전망
 - 2014년 3/4분기 국내 곡물 수입단가는 올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전망
 - 4/4분기 국내 도착될 곡물 수입단가는 국제 곡물 가격하락 시기에 구매된 것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대미 환율은 4/4분기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 수입단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1. 주간 기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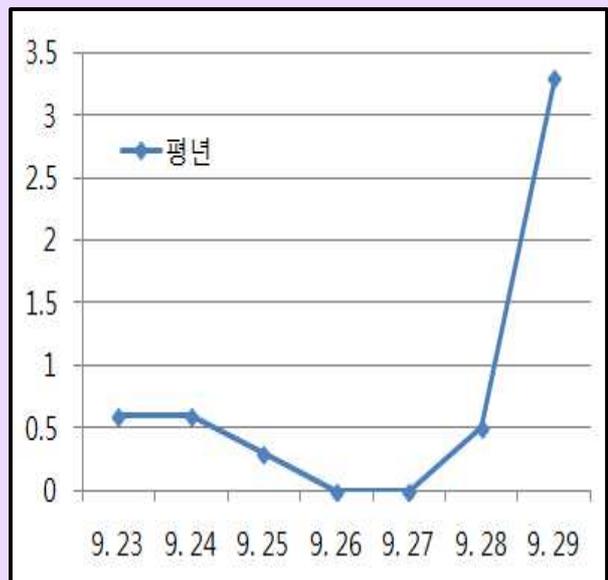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호남내륙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1.3	18.6	2.7	25.1	25.1	0	16.8	13.5	3.4	5.3
9. 23(화)	23.4	19.3	4	26.9	26.3	0.5	18.1	14.1	4	0.6
9. 24(수)	21.3	19.2	2.1	24.4	25.9	-1.5	21	14.3	6.7	0.6
9. 25(목)	20.5	18.5	1.9	23.2	25.1	-1.9	16.8	13.7	3.1	0.3
9. 26(금)	21	18.1	3	25.3	25.2	0.1	14.8	12.1	2.7	0
9. 27(토)	20.7	17.7	3	25.6	25.4	0.2	13.6	11.6	1.9	0
9. 28(일)	20.7	18.5	2.2	25.6	24.2	1.4	15.4	13.7	1.7	0.5
9. 29(월)	21.5	18.7	2.8	24.7	23.4	1.3	18.3	14.8	3.6	3.3

* 기온은 평균이고, 강수량은 합계이며, 평년은 2009-2013년까지 5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강수량(mm)>

2. 농작물 재배동향

2015년산 양파·마늘 재배의향 속도

2015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구분	연도별 재배면적(ha)				증감률(%)		
	2015	2014	2013	평년	2013년 대비	2014년 대비	평년 대비
전국	22,552	23,911	20,036	22,018	11.2	-5.7	2.4
전남	11,561	12,080	10,124	11,350	11.4	-4.3	1.9

- 2015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2,552ha로 추정
 - 2014년산 재배면적은 2013년산 대비 3,875ha 증가, 2015년산 재배면적은 2014년산 대비 약 1,400ha 감소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8. 20.), 2015년산 양파 재배의향 면적은 2014년산보다 6% 감소, 평년보다 2% 증가
 -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014년산보다 소폭 감소, 중만생종은 6% 감소, 평년대비는 조생종이 14% 감소, 중만생종은 5% 증가
 - 2014년산 양파 가격이 낮았으나, 대체작목이 마땅하지 않아 재배의향 감소폭이 크지 않음
 - 종자업체 조사결과, 8월 하순부터 종자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이고 종자를 확보하지 않고 관망하는 농가들이 많아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2015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2014년산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전체	전남	충청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조생종	-2.2	-1.9	-	-1.7	-	-	-2.6
중만생종	-6.3	-4.8	-8.8	-13.9	-8.2	-5.8	-9.6
전체	-5.7	-4.3	-8.8	-12.5	-8.2	-5.8	-3.5

2015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구분	한지형(ha)	난지형(ha)	전체(ha)
2015	5,210	19,344	24,554
2014	5,282	19,780	25,062
평년	5,668	20,089	25,757
증감률 (%)	금년대비 -1.4	-2.2	-2.0
	평년대비 -8.1	-3.7	-4.7

- 2015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4,554ha로 추정
 - 재배의향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약 5%이며, 종구용 마늘 거래가 활발해 향후 마늘 재배면적은 변동할 수 있음.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8. 20.), 2015년산 마늘 재배의향은 2014년산보다 2% 감소
 - 지역별로 충청, 호남, 제주는 재배의향 감소, 난지 대서종 마늘의 주산지인 영남은 증가
 - 품종별 재배의향은 한지형 1%, 난지형이 2% 감소하고, 농가수취 가격이 낮은 남도마늘 재배의향은 감소하나 대서마늘은 증가
- 8월 산지가격 상승으로 마늘 재배의향은 7월 말 조사치(2014년산 대비 -4.5%)보다 2.5%p 감소폭 축소

<2015년산 마늘 재배면적 2014년산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전체	호남	충청	영남	제주
한지	-1.4	-	-6.2	2.0	-
난지	-2.2	-5.4	-1.6	4.6	-11.6
전체	-2.0	-5.4	-4.9	4.0	-11.6

■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7% 감소

- 가을배추 재배의향 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최근 가격 약세로 작년 (15,095ha)보다 6%, 평년(14,366ha)보다 1% 감소한 14,260ha로 조사
- 대체작목은 콩, 깨, 옥수수 등으로 나타났지만 산지 유통인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관망세를 보이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올해 초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작년 (3,885ha)과 평년(3,810ha)보다 각각 7%, 5% 감소한 3,623ha로 추정

〈해남군 자체 재배의향 면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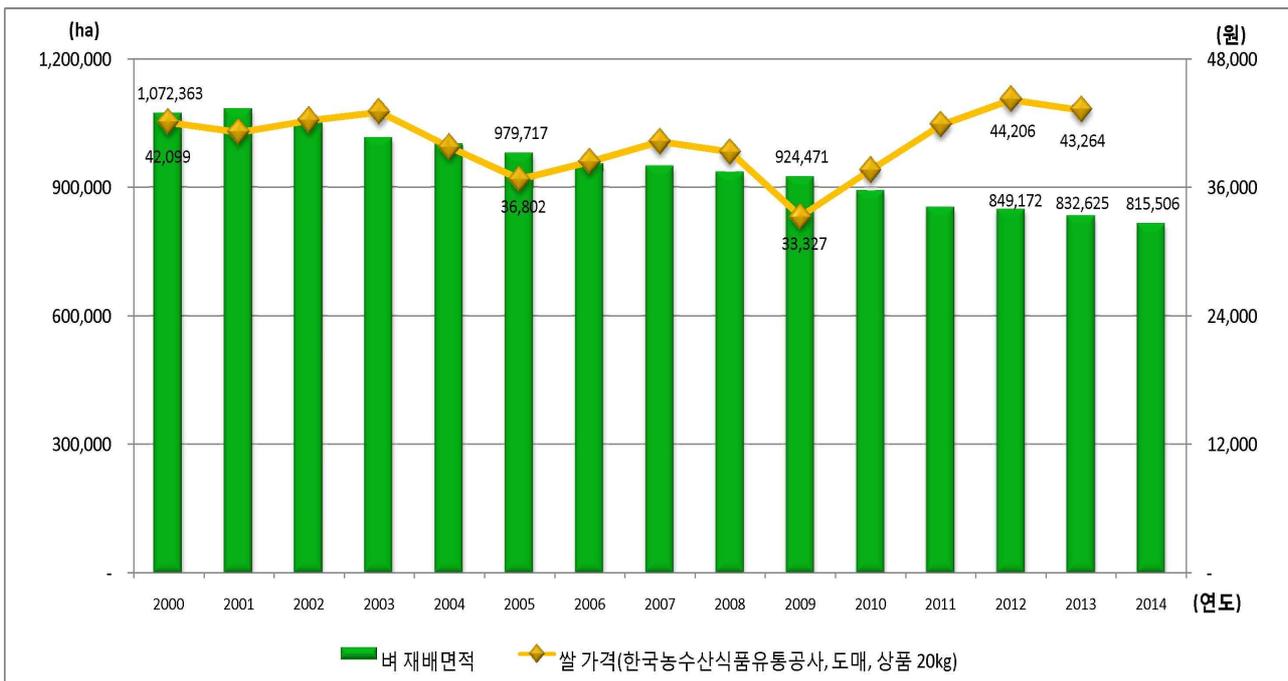
- 가을배추는 전년대비 4% 감소한 1,485ha, 겨울배추는 전년대비 7.1% 감소한 2,640ha이며, 감소 사유는 전년 가격 하락 및 노동력 문제 등으로 재배의향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해남군은 최근 3개년 배추 재배현황 및 도매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을배추는 1,400ha, 겨울배추는 2,600ha 재배되었을 때 적정 가격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
- 겨울배추의 경우 2011년도에 2,660ha로 주 출하기 도매가격은 10kg 1망당 6,800원이었으며, 2012년도는 2,761ha가 재배되었으나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도매가격이 9,400원까지 상승, 2013년도 2,842ha까지 재배면적이 늘면서 도매가격은 3,000원대까지 하락
- 가을배추도 2012년 태풍시 도매가격이 6,100원까지 치솟았지만, 2013년도에는 1,356ha를 재배해 3,200원선 형성

벼 재배면적

- ▶ 전국 : (2013) 832,625ha ⇒ (2014) 815,506ha / 17,119ha(-2.1%) 감
- ▶ 전남 : (2013) 170,690ha ⇒ (2014) 169,585ha / 1,105ha(-0.6%) 감

- 벼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추세로 공공시설, 건물건축 등에 따라 논 면적이 감소하고,
- 밭농업 직불제와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 특용작물 등의 밭작물 전환에도 기인
- 논벼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은 밭벼도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 잡곡류 등으로 대체하여 재배면적 감소
 - 10a당 쌀 생산량(논벼/kg) : ('11) 496 → ('12) 473 → ('13) 508

<연도별 벼(쌀)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 쌀 가격은 양곡년도(11월 ~ 이듬해 10월) 연평균임

고추 재배면적

- ▶ 전국 : (2013) 45,360ha ⇒ (2014) 36,120ha/9,240ha(20.4%) 감
- ▶ 전남 : (2013) 8,859ha ⇒ (2014) 6,792ha/2,067ha(23.3%) 감

○ 고추 재배면적은 2년 연속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큰 폭 감소

○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고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적은 참깨, 땅콩 등으로 작물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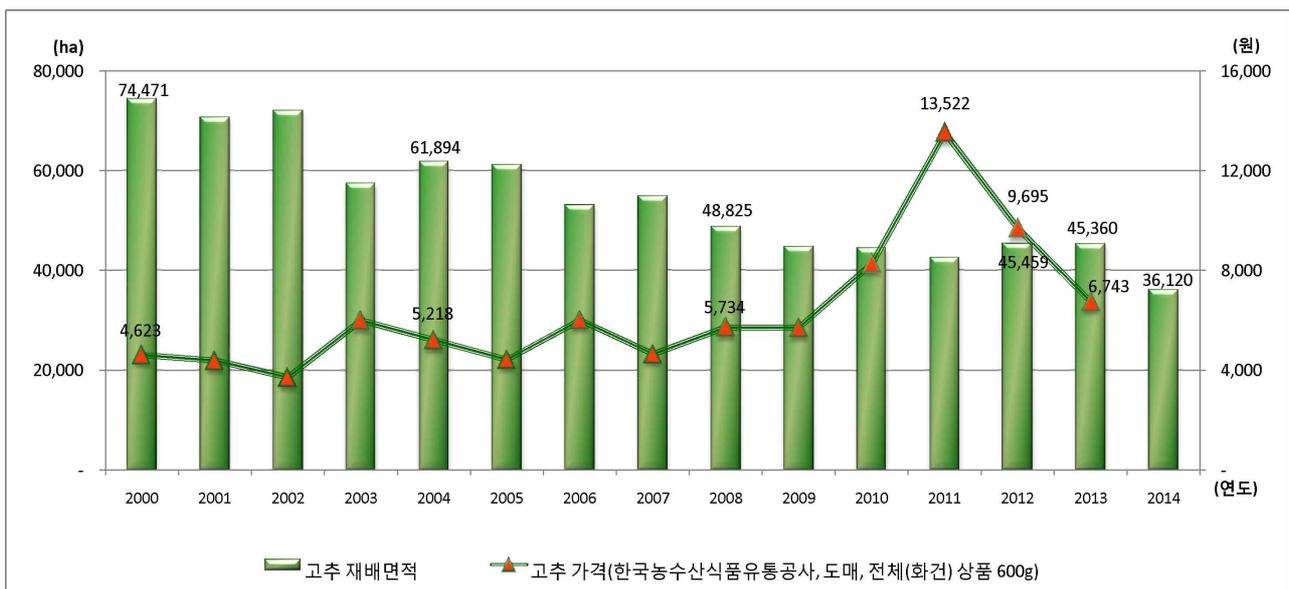
※ 연도별 고추 생산량

- ('10) 95,391 → ('11) 77,170 → ('12) 104,146 → ('13년산) 117,816톤(13,670톤, 13.1% 증)

※ 연도별 고추 가격(도매 평균, 화건, 상품 600g)

- ('10) 8,292 → ('11) 13,522 → ('12) 9,695 → ('13년산) 6,743원(2,952원, 30.4% 하락)

<연도별 고추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 고추 가격은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의 연평균임

3.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

■ 엽근채류 : 배추, 무, 양배추, 당근

- 배추, 무, 양배추 가격은 추석 이후 소비 부진 및 출하량 증가로 약세 전망
 - 배추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4% 증가하고 추석 이후 소비가 감소하면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9%, 36% 낮고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5,000~6,000원/10kg 전망
 - 무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9% 증가하고 추석 이후 소비가 감소하면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5%, 41% 낮고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6,500~7,500원/18kg 전망
 - 양배추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27% 많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6%, 60% 낮고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2,400~3,400원/8kg 전망
 - 당근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39% 적어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5%, 50% 높은 52,000~57,000원/20kg 전망
 - 감자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10% 적어 작년보다 9% 높고 평년과 비슷한 19,000~22,000원/20kg 전망

■ 양념채소 :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 건고추 가격 전월 하순 대비 상승, 마늘·양파·대파 보합
 - 햇건고추 출하량 감소로 상품 산지가격 전월 하순보다 상승한 6,400~6,900원/600g 전망
 - 건고추 출하량은 크게 감소하나, 이월재고가 많아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마늘 가격 2014년산 저장량은 감소하나, 이월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3,400~3,600원/kg 전망
- 양파 저장량 많아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500원/kg의 약세 지속
- 대파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1,050~1,150원/kg 전망

과일 :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 추석 이후 9월 사과·배 가격 하락폭 평년보다 클 전망

- 추석 이후 사과·배 9월 출하량 전년보다 각각 59%, 31% 많을 전망
 - 사과·배의 추석 이후 9월 출하량은 이른 추석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 전망
 - 추석 이후 9월 홍로 가격은 추석 성수기보다 40%(5년 평균 27%), 신고는 30%(5년 평균 15%) 낮아 가격 하락폭 평년보다 클 것으로 우려
 - 사과는 소비촉진, 배는 저장을 통해 출하 조절 필요
- 포도·복숭아 9월 가격 출하량 많아 약세 지속될 듯
 - 포도 9월에도 출하량 2% 증가하여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
 - 9월 복숭아 출하량 많아 엘버트 가격 전년보다 낮은 4.5kg에 1만 9천~ 2만 3천원 전망
- 단감·노지포도·복숭아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사과·배 감소 전망
 - 단감·노지포도·복숭아 생산량은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각각 6%, 5%, 13% 많을 듯
 - 사과 생산량은 단수 줄어 전년보다 4% 감소, 배는 면적 감소로 3% 적을 전망

■ **과채**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애호박, 풋고추

★ 토마토·오이 9~10월 정식면적 증가, 풋고추 감소 전망

○ 토마토 가격 약세 9월에도 이어지겠으며, 오이 가격도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일반토마토 9월 가격은 출하량 많아 작년보다 낮은 10kg에 13,000~17,000원 전망

- 방울토마토 출하량 많아 9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겠으며, 특히 원형 하락폭 클 듯

- 백다다기오이·취청오이 9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각각 5%, 10% 낮을 전망

- 청양계풋고추 출하량 늘어 9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10kg에 36,000~41,000원 전망

- 9월에도 수박 출하 늘어 가격 약세 지속, 참외는 품질저하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애호박·녹광풋고추 9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애호박 9월 가격은 출하량 줄어 작년보다 높은 20개에 16,000~19,000원 전망

- 녹광풋고추 9월 가격은 출하 주춤으로 상승가격 급등하여 작년보다 35% 높을 것으로 예상



■ **축산** : 한우, 돼지, 육계

○ 9~1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강세 전망

- 9~11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13,900~14,400원)보다 2~5% 상승한 kg당 14,000~15,000원(생체 600kg 환산 503~539만원)으로 전망, 9~11월에는 송아지 입식의향이 줄고 계절적으로 송아지 출하가 증가하여 현재(268만원)보다는 약보합세가 예상
- 9~11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낮아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292만 마리보다 5.9% 감소한 275만 마리로 전망, 번식우 비중을 늘리고 송아지 생산 늘려야 함.

○ 돼지 9월 가격 4,200~4,400원/kg으로 전월 대비 약세 전망

- 자돈 폐사로 9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3~5% 감소한 970~990만 마리, 12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1% 내외 감소한 970~990만 마리 전망
- 등급 판정 마릿수 감소로 금년 9월~내년 2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3.8% 감소, 평년 동기보다 8.9% 많을 전망

○ 9월 육계 산지가격 1,100~1,300원/kg 전망

- 9월 도계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5% 증가,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7% 증가 전망, 닭고기 비축물량 72.3% 증가
- 9월 아시안게임 개최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나, 추석연휴 수요 감소와 수산물 소비 대체효과 축소로 닭고기 수요 전년수준 전망
- 9월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하고, 닭고기 수요는 전년수준으로 전망되어,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100~1,300원/kg 전망
- 도계 마릿수 증가로 10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100 ~ 1,300원/kg, 11월은 1,300원 내외 전망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

(2014. 9. 2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소비자가격(당일)		
		판매단위	당일(09/22)	2주일전(09/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판매단위	전시장	대유통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42,400	42,600	42,600	44,400	39,133	20kg	47,169	43,760
	고구마(밤)	10kg	23,000	23,400	27,560	24,450	26,593	1kg	4,300	5,229
	감자(수미)	20kg	23,200	23,200	23,240	23,350	26,950	1kg	1,976	2,419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760	840	780	1,228	1,132	1포기	3,678	3,065
	양배추	10kg	4,620	4,660	4,820	9,700	9,143	1포기	2,360	1,838
	오이(취청)	10kg	10,000	12,000	26,467	16,833	19,828	10개	4,563	6,634
	애호박	8kg	11,200	12,600	19,200	19,950	22,110	1개	1,022	910
	토마토	10kg	26,800	17,000	17,240	32,600	32,940	1kg	3,333	4,769
	무(고랭지)	1kg	570	570	536	835	777	1개	1,739	1,382
	당근	20kg	57,600	57,000	48,080	35,300	38,067	1kg	3,609	5,261
	건고추(화건)	60kg	874,000	874,000	694,000	690,000	833,667	60g	10,469	10,600
	풋고추	10kg	45,600	58,400	45,480	39,650	45,570	100g	765	1,258
	마늘(난지)	10kg	33,400	33,400	33,400	26,200	33,433	-	-	-
	양파	1kg	526	526	500	940	876	1kg	1,278	1,447
	대파	1kg	1,160	1,440	1,192	1,765	2,166	1kg	1,770	2,577
	파프리카	5kg	30,000	30,400	23,200	32,850	32,030	100g	896	1,017
	방울토마토	5kg	10,800	9,800	9,280	20,200	23,013	1kg	4,180	4,825
특용작물	참깨(백색)	30kg	520,000	520,000	530,000	575,000	546,250	500g	11,473	17,040
	들깨	45kg	438,000	438,000	438,000	500,000	304,583	-	-	-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7,680	10,350	-	100g	546	584
과일류	사과(홍로)	15kg	50,400	57,000	73,200	85,200	63,333	10개	20,444	15,480
	배(신고)	15kg	33,000	38,600	80,000	57,050	46,903	10개	24,038	32,041
	복숭아(백도)	4.5kg	-	16,200	15,960	-	-	-	-	-
	포도	5kg	14,600	14,400	16,120	17,250	17,293	1kg	3,773	4,085
축산물	쇠고기(한우등심)	100g	4,536	4,496	4,461	4,302	-	100g	4,035	6,54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54	2,172	2,096	1,873	1,776	100g(중품)	2,087	1,870
	닭고기	1kg	5,019	4,936	5,263	5,558	5,298	1kg(중품)	4,443	5,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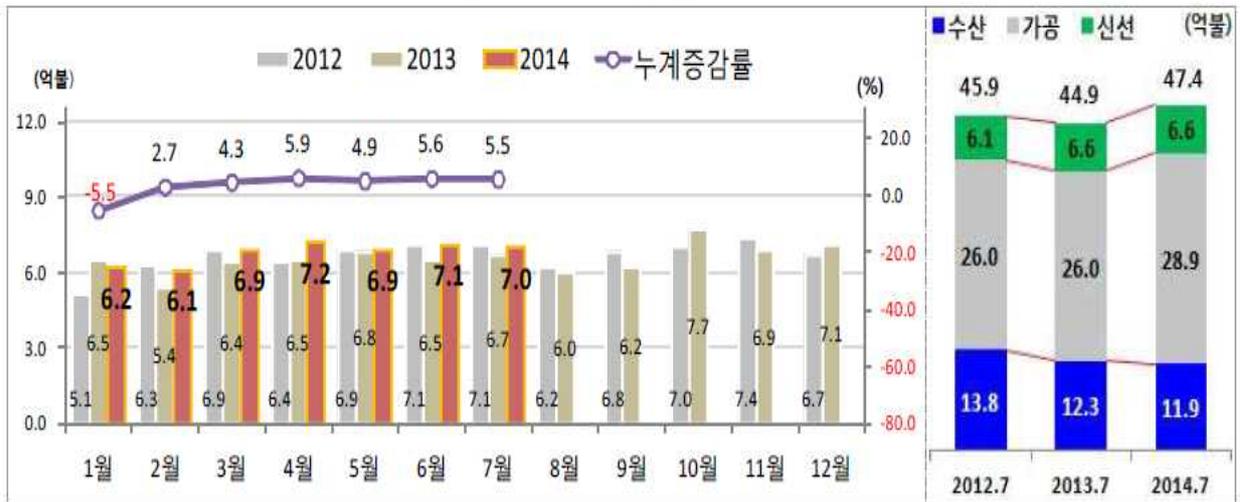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총괄

◇ '14년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은 35.5억불 수출로 9.1% 증가

[‘12년~’14.7 월별 수출추이]



월별 조업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22	23	23.5	23	23	22.5	24	24	22	23	24	21.5
2013년	24	20.5	22.5	24	24	21.5	25	23.5	20	23	23.5	23
2014년	22	21.5	23	24	22.5	22	25					

*조업일수계산법 : 평일(1일), 토요일(0.5일), 공휴일 제외

- (부류별) 신선농식품 0.6% 증가, 가공식품 11.2% 증가, 수산식품 △4.1% 감소
 - (신선) 인삼(101.0백만\$, 18%), 딸기(24.4 10), 김치(50.5, △6), 팥이버섯(9.9, △4)
 - (가공) 고추장(16.9백만\$, 29%), 비스킷(87.1, 18), 막걸리(9.3, △19), 커피조제품(164.2, △5)
- (국가별) 홍콩(8.0%), 미국(7.8%), ASEAN(1.7%), 일본(1.7%) 등은 수출증가, 중국(△1.2%), 러시아(△2.6%) 등은 수출 감소

품목별

- ◇ [신선농식품] 인삼(17.8%), 딸기(9.5%), 유자차(2.1%) 등은 증가한 반면, 화훼류(△37.1%), 김치(△5.7%), 팽이버섯(△3.7%) 등은 감소

[7월 신선농식품 주요품목 수출현황]

(단위 : 백만\$, 천톤, %)



- [인삼] 중국은 뿌리삼, 홍삼정 등 고가제품의 수요가 주춤하나, 비교적 가격수용도가 높은 홍삼 음료의 수출은 증가 추세이며, 일본에서는 정관장 제품의 드럭스토어(약국) 입점 확대 등으로 인삼제품 전체 수출이 증가

* 국가별 : 홍콩(28.9백만\$, 24%), 중국(20.4, 36), 일본(18.5, 18), 대만(14.4, 30), 미국(6.0, △14)

- [딸기] 여름딸기의 본격 출하기로 전년 대비 태풍·장마의 영향이 적어 생산량이 회복되었고, 일본 가공용(케익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

* 국가별 : 싱가포르(8.3백만\$, 17%), 말레이시아(3.0, 12) 일본(1.3, 89), 러시아(0.6, 58), 홍콩(8.6, △1)

- [유자차] 한국식품에 대한 현지소비자의 관심증가로 중화권, 미국으로의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전개로 5월 수출회복 후 증가세 유지
 - * 국가별 : 중국(12.7백만\$, 11%), 홍콩(3.4, 8), 미국(0.7, 1), 싱가포르(0.3, 40), 일본(2.6, △35)
 - * 월별(월누계) : ('14.4) 13.4백만\$, △3% → ('14.5) 16.5, 1 → ('14.6) 19.5, 2 → ('14.7) 22.2, 2

- [화훼류(백합·장미·국화)] 주 수출국인 일본의 수요침체, 엔저 지속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주력 수출품목인 장미, 국화, 백합 등의 수출 감소
 - * 국가별 : 네덜란드(1.6백만\$, 24%), 미국(1.4, 32), 일본(123, △43), 중국(29, △52), 말레이시아(0.1, △2)

- [김치] 일본은 PB상품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및 엔화약세로 수출이 부진하나 홍콩으로는 한류영향 및 김치가 웰빙식품으로 인지되면서 소비매장 입점이 증가하며 수출 증가
 - * 국가별 : 홍콩(2.8백만\$, 35%), 호주(1.2, 32), 일본(35.4, △12), 미국(27, △10), 싱가포르(0.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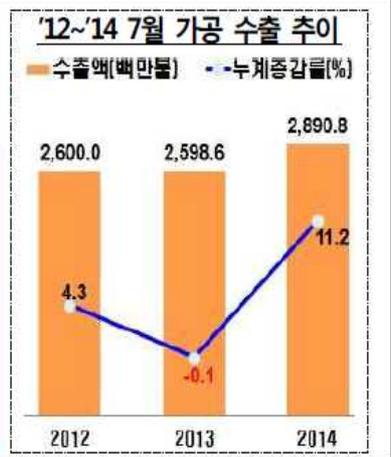
- [팽이버섯] 주로 외식업체 수요가 많은 미국·말레이시아 등에서의 월드컵 등으로 인한 외식 소비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국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의 내수전환으로 수출 감소
 - * 국가별 : 미국(2.6백만\$, 2%), 호주(1.3, 10), 베트남(22, △12), 캐나다(0.6, △3), 싱가포르(0.6, △17)
 - * 미국 : ('14.5) 2.0백만\$, 8% → ('14.7) 2.6, 2 / 말레이시아 : ('14.5) 0.6백만\$, 8% → ('14.7) 0.8, 1

- ◇ [가공식품] 고추장(29.1%), 비스킷(18.4%), 음료(13.8%) 등은 증가한 반면, 막걸리(△19.2%), 커피조제품(△4.9%), 맥주(△2.9%) 등은 감소

[7월 가공식품 주요품목 수출현황]

(단위 : 백만\$, 천톤, %)

구 분	'13년	2013.7월		2014.7월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가공>	4,544.1	1,747.4	2,598.6	1,853.6	2,890.8	6.1	11.2
(+) 고추장	24.3	5.6	13.1	6.8	16.9	20.3	29.1
(+) 비스킷	132.5	11.5	73.5	13.2	87.1	14.8	18.4
음료	243.5	158.4	154.2	186.4	175.4	17.7	13.8
(-) 막걸리	18.9	10.9	11.6	9.3	9.3	△15.1	△19.2
(-) 커피제품	306.1	44.1	172.6	40.7	164.2	△7.8	△4.9
맥주	72.3	67.2	42.4	62.8	41.2	△6.6	△2.9



○ [고추장]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 핫소스 시장이 급성장하며 고추장 수출도 꾸준히 증가추세. 특히, 매운맛의 등급화 및 핫소스타입의 튜브용기식 고추장 개발 등으로 현지시장을 공략하는 추세

* 국가별 : 미국(5.7백만\$, 24%), 중국(2.4, 129), 캐나다(0.9, 16), 호주(0.7, △3), 일본(2.0, △6)

○ [비스킷] 간식을 즐기는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 일본산에 비해 저가이면서 안전한 한국산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쌀과자 등이 웰빙식품으로 인지되면서 수출 증가

* 국가별 : 중국(26.1백만\$, 30%), 미국(14.5, 15), 대만(6.0, 1), 호주(3.3, 70), 일본(7.6, △10)

○ [음료] 미국으로의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에너지 음료류 시장 확대에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국가별 : 미국(38.3백만\$, 17%), 캄보디아(20.4, 30), 홍콩(5.8, 117), 베트남(27.55), 중국(23.8, △6)

○ [막걸리] 주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지속 감소세이나 중국 및 홍콩은 한국드라마 영향으로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고, 한식당 체인 입점 확대에 수출이 급증

* 국가별 : 중국(1.2백만\$, 40%), 홍콩(0.5, 378%), 일본(5.8, △33), 미국(1.0, △4), 베트남(0.2, △8)

○ [커피조제품] 중국 내 저가제품 판매경쟁으로 인해 수출 감소추세이며, 러시아의 루블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커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류 수요가 증가하며 감소세

* 국가별 : 대만(8.7백만\$, 33%), 싱가포르(5.1, 29), 중국(31.8, △5), 러시아(22.5, △15), 인도네시아(19.6, △21)

○ [맥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은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이외 주요 수출국가에서는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맥주 브랜드 간 경쟁심화로 수출 감소세

* 국가별 : 중국(8.2백만\$, 36%), 미국(1.8, 2), 홍콩(18.2, △6), 일본(22, △7), 싱가포르(1.9, △54)

■ 국가별

◇ 홍콩(8.0%), 미국(7.8%), ASEAN(1.7%), 일본(1.7%) 등은 수출 증가, 중국(△1.2%), 러시아(△2.6%) 등은 수출 감소

<‘14년 7월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

국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수출액	1,216.4	714.5	458.6	147.3	235.2	149.5	802.4	257.3
증가율	1.7	△1.2	7.8	△2.6	8.0	7.4	1.7	8.8
(비중)	25.7	15.1	9.7	3.1	5.0	3.2	16.9	5.4

○ [미국] 미국의 경제회복 및 소비자 지출(2분기 소비지출 2.5%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외식산업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마케팅·유통매장 입점 노력으로 과자류 수출이 증가. 특히, 최근 쌀과자 등이 웰빙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출이 증가 추세

* 주요 수출품목 : 김(40.8백만\$, 1%), 껌(35.0, 16), 비스킷(14.5, 15), 오징어(8.7, 12), 고추장(5.7, 24), 꿀(9.1, △8), 국수(6.9, △6), 김치(2.7, △10)

- [ASEAN] 인도네시아는 주요 식품매출 시즌인 라마단 시기 (6.28~7.27) 식음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식품도 매출 호조. 베트남은 `14.3월 가금육 수출에 대한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5월부터 닭고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태국은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면서 소비활동이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스낵류의 수출이 지속 증가

* 주요 수출품목 : 음료(28.7백만\$, 27%), 라면(17.6, 16), 오징어(15.8, 54), 닭고기(14.1, 19), 딸기(13.5,12), 커피조제품(43.3, △9), 김(23.6, △14)

- [중국] 조제분유·인삼·비스킷·김 등의 주력품목 및 현지 한식당에서 수요가 많은 막걸리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위안화 절하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둔화된 상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14.6기준 270만명, 전년동기대비 57%↑)을 통한 구전 홍보 효과로 한국식품 소비 확대 기대

* 주요 수출품목 : 조제분유(36.4백만\$, 6%), 비스킷(26.1, 30), 인삼(20.4, 36), 김(22.6, 27), 유자차(12.7,11), 커피조제품(31.8, △5), 참치(9.1, △24), 난초(2.2, △65)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벼 무논점과, 생산비 · 노동력 절감 효과 커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무논점과 재배기술을 전국에 시범 보급한 결과 재배면적이 2008년 100ha에서 지난해 1만2193ha로 5년 만에 120배 가량 늘었다.

무논점과는 파종기를 이용해 물을 채웠다 뺀 논에 싹을 틔운 볍씨를 6립 정도씩 모아 뿌리는 방법이다.

특히 육묘를 위해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모내기를 할 필요가 없어 쌀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의 기계이앙보다 육묘이앙단계에서 생산비는 81.2%(1ha당 23만 5000원), 노동력은 35.3%(1ha당 22.3시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0만ha 무논점과 재배하면 해마다 1020억 원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여기다 1mm~2mm 정도 싹을 틔운 종자를 파종하는 만큼 씨를 세운 비율이 높고 벼 쓰러짐에도 강하다.

한희석 농진청 기술지원과 박사는 “2017년까지 8만4000ha로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 한과 튀기지 말고 '구워 드세요'

농촌진흥청은 명절에 즐겨 먹는 전통 한과의 열량과 당 섭취를 줄이고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가당 구운 한과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과는 고물을 묻히기 위해 한과에 바르는 꿀이나 물엿 등 집착액의 단맛이 강하고 치아에 달라붙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무가당 구운 한과 제조기술'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등에 구워 만들 수 있다.

집착액도 맥아물엿이나 조청 대신 저열량의 당알코올과 간장 분말을 혼합해 만든 것을 사용한다. 구운 한과는 기존 튀긴 한과보다 열량이 60%가량 적고, 한과 100g당 조지방 함량도 약 17% 적다.

또한 무가당 구운 한과는 오래 뒤도 냄새가 나거나 맛과 색이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단맛이 강한 기존 한과와 달리 구운 한과는 당알코올 집착액에 간장 분말을 더해 고소함과 담백함에 짝조름한 맛을 더했으며, 단맛은 줄여 새로운 맛과 색을 낸다. 또한 치아에 들러붙지 않는다.

농진청은 구운 한과 제조 기술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DIY형 재료 세트를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한과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 재료 세트는 반대기(발효 찹쌀 반죽한 것을 얇파하게 만들어 건조한 조각), 집착액(당알코올, 간장분말), 세반(뽕튀기한 찹쌀을 뽕은 가루)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트를 이용하면 가정에서 10여 분만에 무가당 구운 한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김진숙 농진청 가공이용과 연구관은 "무가당 구운 한과는 담백하고 저열량 음식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한 쌀과자로, 명절은 물론 어린이와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간식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6. 정책 동향

◆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명시
-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부터 관세화 시행

〈관세율 513% 적용시 외국 쌀 예상 국내 도입가격〉

구 분	'13년 가격(CIF)* (\$/톤, aT)	원/\$ 환율 (한국은행)	수입 쌀값 (원/80kg) (A)	관세 (원/80kg) (B)	국내 도입가격 (원/80kg) (A+B)
미국산 (중립종)	683	1,095.04	63,303	324,746	388,049
중국산 (단립종)	919	1,095.04	85,177	436,957	522,134
태국산 (장립종)	488	1,095.04	45,230	232,029	277,259

◆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발표

- 쌀 고정직불금 ha당 90만원 → 100만원 인상 합의
 - (2015년 예산 845억원 증액) 전체 농가의 약 60%(77만1천 가구) 혜택
- 콩,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 수입보장보험 도입
- 친환경직불금(유기농) 지급기간 5년 → 8년으로 연장

7. 해외 농업정보

◆ 하반기 곡물 수입단가 약보합 전망

▶ 곡물 수입단가 3/4분기 강보합, 4/4분기는 하락 전망

- 2014년 3/4분기 국내 곡물 수입단가는 올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전망된다.
 - 3/4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전 분기 대비 3.0% 상승, 사료용 수입단가는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옥수수는 상반기 국제 옥수수 가격이 높은 시기 3~4월에 구매되어 전 분기 대비 상승이 예상된다.

- 4/4분기 국내 도착될 곡물 수입단가는 국제 곡물 가격하락 시기에 구매된 것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용곡물 수입단가 4/4분기는 전 분기 대비 6.3% 하락 사료용 수입단가는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두박의 경우 4/4분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미산으로 전환되어 3/4분기 보다 낮게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는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용 옥수수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크게 하락한 6월 이후 구매된 것으로 미국산 동 유럽산이 수입될 전망이다.

- 대미 환율은 4/4분기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 수입단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곡물 수입단가는 브라질과 캐나다 물류 문제 지속여부 대미 환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시범적 농업” 좋은 반응 젊은이들에게 취업기회

일본 고치현(高知縣) 도사초(土佐町)와 오사카부 도요나카시(豊中市)는 취농희망자가 시범적으로 농업연수를 할 수 있는 farm+biz(농장 비즈)」를 전개하고 있다. 도사초(土佐町)의 농업법인이 농업에 흥미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farm+biz」는, 도사초(土佐町)가 도요나카시(豊中市)에 안테나숍(antenna shop)을 설치한 것을 인연으로 작년 7월에 시작했다. 도요나카시(豊中市)가 긴급고용 대책사업을 활용해 음식 관계 등의 민간기업 2사에게 위탁, 젊은이를 인터넷 등으로 모집해 도사초(土佐町)에 파견한다.

연수비는 무료로, 식비와 숙박장소는 마을(町)이 부담한다. 농업을 습득하는 장소는, JA도사레이호쿠(土佐れいほく)가 출자하는 농업법인 「れいほく未?(레이호쿠미래)」, 기간은 기본적으로 3주일 정도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20~40대의 30명이 참가하여 연수 중에는 모내기나 채소의 정식, 풀베기 등 각양각색의 농작업을 수행한다.

“시범적 농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력으로 취농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젊은이들의 의욕에 불을 붙였다. 갑작스럽게 신규로 취농하거나 농업연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젊은이에 있어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이 같은 시범적 농업이라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옥수수생산량, 가뭄으로 전년대비 2.2% 하락전망

중국은 가뭄으로 인해 2014년 옥수수 수확량이 2010년 가을수확량 이후 약 2.2% 하락했다.

CNGOIC에 따르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세 지역의 올해 옥수수 수확량은 213.8백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가뭄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옥수수 공급량은 초과상태이며 60백만 톤 이상의 정부비축 재고분이 있다고 한다.

주간

전남농업정보

1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